

학교주변 빙집 점검 활동 실시

전남도교육청,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유관기관 합동 진행



전남도교육청이 수능 이후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빙집 점검에 나섰다.

유관기관 합동 빙집 점검은 10 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22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점검과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4일에는 목포와 영암 지역에서 전남도청, 전남도의회, 전남지방경찰청, 목포시청, 영암군청, 목포경찰서, 영암경찰서, 목포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점검활동을 벌였다.

특히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구축과 빙집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주변 빙집 실태를 파악하고 출입문이 개방된 빙집을 폐쇄했으며, 대문과 담에 정서를 순화시키는 시 구절을 적은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학교주변 환경 개선에 힘썼다.

인구 감소와 이농으로 인해 농

촌 지역 빙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 빙집은 학생들이 폐기장을 보고 등·하고 하는 등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범죄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장기간 방치된 학교 주변 빙집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두 차례의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의 사고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전 남의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 빙집 등 유해환경을 제거해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마동초, 전문강사 초빙 성교육 실시

광양마동초등학교가 지난 10월 29일, 30일 이를 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성교육을 실시했다. 여수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성교육과 관련한 47자 주제를 가지고 20분씩 학생들이 이동하는 로테이션 수업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의 의미, 사춘기 성 발달 과정, 임신출산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성 이미지를 통한 ‘성’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올바른 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성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장원표 교장은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으로 받은 성교육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출발해 나아가 바람직한 성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더욱 자주 초빙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연수원, 학생독립운동 90주년 특강 실시

광주교육연수원이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이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임채석 석양장을 초청해 학생들의 학성,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3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의 날 90주년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던 실무담당자의 생생한 뒷이야기는 물론, 추진하면서 느낀 소회, 향후 계획을 듣는 기회였다.

임채석 과장은 “이번 90주년 기념행사는 경기도 의왕시 모락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들이 학생독립운동 배지를 제작·판매한 소박한 수익금을 기부한 감동의 편지 한 통으로부터 출발했다”며 “학생들의 소중한 생각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전국학생 문화예술 축전, 113초 영화제, 독립운동 DVD영화관, 역사카페미, 버스투어 역사교실, 학술세미나, 팟캐스트 역

사특강, 슬로건 공모, 배지 제작 등 궂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일하고 내실 있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동일 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교직원·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주교육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연수원도 학생 독립운동 내실화를 위해 현장체험형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나주중, 교육복지 꿈키움

진로탐색 활동 전개

나주중학교가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1학년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복지 진로탐색 꿈Job Go' Dream 여행 활동을 한국잡월드와 롯데월드에서 펼쳤다.

진로탐색 체험활동을 떠나기 전에는 나주 지역 행복드림코칭스쿨과 연계해 찾아가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3회기로 운영해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등 프로그램의 효율적 성과와 집중도를 높였다.

진로탐색 활동을 거친 후 한국잡월드를 방문해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해 보며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교육청, 홍보기자단 워크숍 실시



로운·오프라인 소통을 하고 있는 전남 현직 교사들과 전·현직 기자·블로거·유튜버 등을 강사로 초청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능주고 양정미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보도자료 작성법'을, 현경조 한도윤 교사는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유튜브 교육'을,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는 '좋은 기사 작성하기'를, 블로거 송해주 씨는 '나도 파워블로거'를 주제로 강의했다. 또 사진작가 박상배, 유튜브 크리에이터 정지운 씨는 사진 촬영 기분과 유튜브 제작 기분 등을 전해 참가자들이 바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통 한마당에서는 참가자들이 평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애로사항,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워크숍은 강연과 소통한마당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양한 방법으

함평교육지원청, ‘사람책 프로그램’ 운영



평해보중학교는 프로그램 운영 전 전교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업 분야를 사전에 선택하게 해 2시간동안 운영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업인의 분야는 ‘드론’, ‘팝아트’, ‘조형사’, ‘태권도’ 등 네 분야이며, 직업인들은 그 직업을 갖게 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으로 각각의 직업을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박영숙 교육장은 사람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업인들에게 “아이는 가정과 학교와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함평 관내에 이렇게 젊고 유능한 창업인이 많이 있어서 매우 반갑다.”면서 “또한 자신의 능력을 지역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부를 해주시니 오늘 이 자리의 가치가 더욱 크다.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함평=김광춘 기자

